

존재의 평온 (2부)

| 진 클라인 | 박승숙 옮김 |

주체와 대상이 없는 순수 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어느 것에도 기대어 서지 않는 최후의 현상을 알아채게 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이전에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령 피아노를 배울 때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한된 대상에도 노력이 들어가는데 무한성에는 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보를 관찰하고 이것을 피아노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피아노를 배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곡을 처음 연주할 때 당신은 먼저 상황을 의식합니다. 손의 위치와 곡이 소리 나는 방식 등을 관찰함으로써 음악과 접하게 됩니다. 곡을 두 번째로 연주할 때는, 무엇이 완벽한 연주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에 당신은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게 됩니다.

본성을 깨닫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목이 생기고, 나아가 자생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중 어느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력”이란 말은 ‘의도’를 포함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이지요. 하지만 이 목적이란 것은 과거나 기억의 투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무조건적인 귀 기울임이라는 의미에서 “올바른 주의”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방향성이나 동기, 투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올바른 주의가 이루어지면 조건 없이 귀기울이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는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듣는 것이며 주객관계

를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귀기울임이 일어나지만 ‘어떤 것’이 들리거나 ‘누군가’가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귀기울임은 우리의 본성이므로 귀기울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늘 뭔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자신을 독자적인 개체로 간주하는 한 갈구와 불완전한 느낌은 계속됩니다. 예고는 지속적으로 성취와 안전을 추구하므로, 끊임 없이 무엇이 되어야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실한 삶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은 매순간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마음을 열어 놓으면, 당신 안에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안감이 그치게 되고 고요 속에서 당신은 완전함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아상이 없으면 당신은 참으로 삶과 하나가 되고 지성의 움직임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발적인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리적인 방해가 없는 순수한 지성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고 있지만, 한 개인이라는 이미지로 돌아가 버리는 순간 이러한 직관이 옳은지 그른지, 자신에게 좋을지 나쁠지를 질문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에고인 나ego-I”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행동action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반응reaction일 뿐입니다. 침묵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행동이며, 그 행동은 잔여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어요. 반면 “에고인 나”가 하는 의도적인 행위는 늘 잔여물을 남겨서 꿈으로 나타난다거나 심하면 병적인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발적인 상태에서는 행동이 일어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

다. 전략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과 기억에서 자유로운,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며 이 같은 고요 안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발적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의 열린 상태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행동은 추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관찰을 통해 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차도로 뛰어들면 우리는 “애 엄마를 부를까, 내가 가서 애를 데려올까,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가버릴까” 하고 멈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지요. 이 행동은 스무 번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새롭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속한 일입니다.

자발성과 충동성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충동은 기억에, 조건에 근거합니다. 충동은 일종의 반응이며 대개 감정적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반응과 자발성의 차이점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행동은 상황으로부터 나오며 그 상황에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한 행동 안에는 의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나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런던에 가야겠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갈지, 어디에서 머물지 등과 같은 일은 시공간 속에서 직감의 연장으로 실현됩니다. 직감이 당신의 현존으로부터 나와서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직감을 부여잡고 그것에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나 의도를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걸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까... 가도 좋을 게 없을 거야” 등등.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는 투사하고 비교, 평가하는 데서 자유로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자신은 특정

한 누구'라는 생각에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른바 영적인 깨달음이란 그저 '투사된 이미지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어떤 양식을 투사하는 것이 없으면, 당신의 환경도 자유롭게 됩니다.

좌선 수행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상은 지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명상하겠다는 의도로 앉아있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하려는 내적인 욕구는 있겠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에고로서의 나(ego-I)”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다시 말해 당신의 본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좌선이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줄곧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당신을 '반응'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무조건적인 귀기울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귀기울임'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저절로 당신을 귀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순간이 명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의식과 그 대상인 생각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원성은 비이원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의식과 지각이 하나라면 ‘내가 이 카펫을 봤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는 기억이 말하는 것인데 기억이란 그저 사고방식, 즉 정신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내가 “카펫을 봤어”라고 말하는 순간, 꼬리표를 과거라

고 붙일 뿐 그것은 현재의 생각입니다.

생각과 그 생각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을 생각할 때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당신이 감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직접 지각한 이후 그 위에 개념을 부여하게 되면 지각이 멈추게 됩니다. 지각과 개념은 함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념화하기를 멈추면 침묵, 의식, 순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요함이 남게 됩니다. 이 모든 말이 있음Being을 의미합니다.

얻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동경하는 순간, 주객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경의 대상이 있으면 당신은 동경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경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동경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참으로 이해한다면, 동경받는 무언가를 투사하는 행위를 멈출 것입니다. 대상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를 고착시켜 에고를 국소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만들기를 멈출 때 모든 뭉쳐진 에너지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고요함 그 자체로써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가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달은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아닌 것은 모두 당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시공간 속에 확장되어 나와 표현된 것이지요.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볼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본성과 감각, 몸의 긴장과 느낌 및 욕망을 아무런 판단 없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관찰대상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것’과 단지 ‘주의만 있는 것’은 각기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입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대답할 테지만 사실 입 자체의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그 자체의 맛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체가 내적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당신은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에는 생각이나 형태가 있습니까?

알아차림 속에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형태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실존에서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당신이 근원적인 자각입니다. 생명은 그저 근원적인 자각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나 두 가지 인식의 틈 사이 바로 그 빈 공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생각이 침묵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자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고요 속에서 나오게 합니까?

반사적인 반응 때문이죠. 지금껏 당신은 오직 지각 안에 있는, 말하자면 사건과 감정이 연관된 자신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는 예고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고

는 상황과 쥘여야만 존재할 수 있어서 항상 붙잡을 만한 것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놓아버릴 줄 알게 되면 즉, 상황을 만들기를
그만두고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더 이상 “당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유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마음의 움직임에 더 이상 주의가 가지 않아서
자유로운 겁니까?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끌림이나 밀침이 없어집니다. 생명
이 표현되고 확장되는 것은 지속되지만 더 이상 반응하거나 집중하거
나 긴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통제하는 예고가 있을 때만 그 같은 현상
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되려는’ 과정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지금 이 순
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
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있고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 침묵이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당신이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 두려움이 아님을 아
십시오. 두려움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인데, “두려움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느끼려면, 두렵다는
생각인 개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각이 스스로를 드러낼 기
회를 얻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순수한 감각은 그저 긴장감일 뿐입니다. 긴장감은 여
자 혹은 남자, 어머니 혹은 아버지,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상상의 관점
에서 볼 때 생깁니다. 그러한 긴장감은 심신에 물리적, 화학적, 정신

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은 분석해서 즉, 논리적인 근거로 추론해서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되는 대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야 할뿐더러 그 두려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가세요. 마치 꼭 타야 하는 기차가 막 출발하고 있어서 올라타기 위해 당신이 저절로 기차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기차의 움직임에 따라 당신의 모든 에너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기차의 난간을 붙잡고 올라타겠지요.

그러므로 두려움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 움직이십시오. 거기서 달아나려고 하거나 합리화하고 분석하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설명이 아무리 철학적이어도 그런 것은 두려움이 주는 실질적인 긴장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두려움은 개인성과 관련 있고 개인성은 당신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부분(개인성)은 단편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봅니다. 따라서 부분은 결코 조화로울 수가 없고 단편적인 관점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당연히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없어야 합니다. 감각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가면 당신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분리되고 무관해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이를테면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것이지요. 지각이 당신의 대아(大我), 당신의 열린 마음속으로 용해되고, 두려움이 없는, 이 열린 마음속에서 당신은 깨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과 욕망, 불안감에서 한걸음 물러나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알아차림을 붙잡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은 모든 지각 속에 있는 그 빛입니다. 모든 대상과 지각은 이 빛, 즉 당신의 본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각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 속에 있는 이 빛을 두고 나는 궁극적인 주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궁극적인 주체는 주객관계 속에서 자신을 일컫는 “나”라는 주체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각이 있는 이유는 당신(또는 빛, 알아차림, 궁극적 주체 등 뭐라 이름붙이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은 당신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각하고 있음을 완전하게 알아차리십시오. 지각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무한합니다. 시공간이란 움직이는 에너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지를 지닌 주체가 끼어들어 지각을 공고히 굳히지만 앎는다면, 지각은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가 다시 침묵 속으로 녹아듭니다. 침묵은 지속적이지만 지각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각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하는 주체에 중점을 두십시오. 처음에는 지각이 녹아든 후에야 고요한 알아차림을 경험하겠지만 나중에는 대상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당신은 침묵이 될 것입니다.

백지 위에 무엇을 쓰든 종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선택 없는 알아차림은 깨어있고 잠자고 꿈꾸는 세 가지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순수 의식과 겹쳐집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무한 속에 자리 잡기 위해 시간 속에서 움직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무한 속에 자리 잡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한이 자리 잡는 건가요?

당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몸, 감각, 느낌, 두려움과 생각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몸, 느낌,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감정에다가 기억된 이미지를 겹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단계를 말할 수 있다면)는, 당신의 끊임없는 반응과 기대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켜보면, 보이는 대상이 보는 행위 그 자체로 수렴됩니다. 거기엔 더 이상 애고가 달려들어 판단하고 자격을 주거나 결론지으려고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긴장과 집중을 넘어서서, 주의하는 자도, 주의를 받는 대상도 없는 주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주의상태를 살아보십시오.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서, 이 주의 상태는 주객관계를 벗어나 있으니까요. 당신이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온갖 상태를 드나드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에서만 사랑과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앉은 다음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재킷을 벗을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연기하는 자는 없습니다. 연기하는 행위, 즉 재킷을 벗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연기하는 자는 중첩된 이미지이자, 행위가 있는 다음에야 나타나는 일종의 기억입니다. 행위 그 자체에서는 둘로 나눌 게 없

습니다. 당신은 “연기할 수 있다, 연기하면서 ‘내’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연기자로서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이며 두 가지 생각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 빠르게 일어나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킷을 벗을 때 의식적으로 벗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자..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몸은 내 지각 속에 있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따뜻함을 느끼고 그 따뜻하다는 느낌이 재킷을 벗게 합니다. 완전히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이지요.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재킷을 벗는다’는 것은 행동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이미지를 행위자로 삼고 말이죠. 그러나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에는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연주하는 그 순간에는 연주하는 데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내가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연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재빨리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연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원적입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나”에게 속해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이올린 연주자와 동일시하면, 연주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는 연주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몸, 행위, 생각, 감정에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런 동일시 과정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어떻게 통찰하면 비동일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당신에게 형체와 이름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교육과 환경이 당신에게 많은 자격을 부여하고 당신은 이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동반한 다양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축적물은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 “당신”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곱 살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기르지 않았을 때도 기억할 수 있지요. 이것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당신 안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의미이지 변화 속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변화 속에 당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통찰(당신의 언어를 사용하자면)에 속한 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변치 않는 여여함입니다. 당신은 모든 변화의 목격자지만 이 목격하는 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목격자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해야 옳은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화가 생기면 내 머릿속에 기록되고 이 기억으로 변화를 압니다. 굳이 목격자를 들일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격자는 항상 존재하며, 늘 현재형입니다. 목격자는 변화나 환경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봅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를 알아차릴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목격자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생각이며 전해들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격자를 안다는 것은 모든 변화를 관통해 흐르는 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그것을 “목격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당신이 아님을 보여주고,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교육적 장치일 뿐입니다. 결국 목격자조차도 그것이 생겨난 존재 속으로 사라집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Ease of Being』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진 클라인** Jean Klein | 프랑스 작가, 영적 스승,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anta(비이원주의) 사상가. “자발적인 내적 고요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본성, 순수 의식 자체에 눈뜰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 브르노Brno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빈과 베를린에서 음악과 의학을 공부했다. 1933년에 프랑스로 와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레지스탕스에서 활동했다. 1950년경 인도로 떠나 3년 간 요가를 공부했다. 그때 아드바이타의 영적 스승을 만났고, 서양으로 돌아와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영면에 들었다. 저서로는 『Be Who You Are.』, 『Ease of Being.』, 『Who Am I? The Sacred Quest』 외 다수가 있다.

역자 | **박승숙** | <지금여기> 번역위원